



## 2 수학·과학 성취도는 높는데, 왜 하는지는 몰라

싱가포르	14	662	4
리투아니아	13	579	4
러시아 연방	12	603	4
이탈리아	12	559	4
슬로베니아	11	586	4
대만	7	709	3
홍콩	7	655	3
대한민국	3	723	3
일본	2	~	2
국제 평균	14	539	4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학, 과학 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자신감이나 흥미도는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의 수학과 과학에 대한 가치 인식 역시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공부의 필요성을...

## 7 인도네시아 외할머니와 통화할 수 있어 기뻐요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흥)은 지난 13일 관내 7개교 다문화학생 52명을 대상으로 목포교육청대회의실에서 '제회 어머니나라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번 대회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

## 12 송년의 인사



해 오름달에서 매듭달까지 산비탈을, 진흙탕 속을 때론 넘고, 땀지만 끝내 소박한 마을 아이들 웃음 속으로 그대가 서서히 사라지는 그 순간

# 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 직무능력과 투명성 고려 신임 행정국장에 양창완

전남교육청은 2013년 1월 1일자 3급 승진 1명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1,226명(일반직 687명, 기능직 539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양창완 총무과장이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신임 행정국장에 임명되고, 한택희 행정국장이 나주공공도서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4급 서기관은 본청 이종범 방과후학교지원단장이 새로이 신설된 홍보담당관으로, 김복휴 재무과장이 총무과장으로, 김원경 거점교육성추진단장이 재무과장 자리로 전보 발령되는 등 11명이 자리를 옮겼고, 임의환 인사담당사무원이 4급으로 승진해 감사총괄담당에 선임됐다.

5급의 경우, 이승일 감사담당관실 청렴담당사무원이 목포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으로 전보되는 등 42명이 자리를 옮겼다.

나아가 소수직렬 장기재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전남학생교육원 박은식 보건사무관을 강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으로 보직을 부여했다.

한편, 심사승진제를 통해 선발된 23명의 5급 승진대상자 중 나주공공도서관 김현철 등 18명이 이번 인사에서 사무원으로 승진했다.

6급 이하 일반직의 경우 승진 64명, 전보 488명을 비롯하여 총 597명이, 기능직은 승진 369명, 전보 129명 등 총 539명이 인사발령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발령은 4급 서기관급 이상은 개인별 성과, 청렴성, 민주성과 조직화합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용했고, 5급 사무관은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은 인재인 만큼 직무와 본인의 희망 등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6급 이하의 경우 본청 전임직원에 대해서는 직위공모제와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루 갖춘 인력을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본인의 희망에 따른 개인별 전보서열명부 순위에 의한 전보를 엄격하게 적용·시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구현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총무과 사무원 임의환



## 거점고 및 기숙형중학교 시설 마스터플랜 완성

전남교육청 설계자문위원회는 거점고등학교와 기숙형중학교 10개교에 대한 기본시설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마스터플랜은 21세기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공간 창출과 미래지향적 학교시설로서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됐다. 김기정 시설과장은 "이번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 학교시설 설계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하고, 기술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문을 함으로써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객관적 확보와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적 감각의 학교 시설을 건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설계자문위원회는 대학교수, 건축사 및 기술사 등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사진은 보성 북대중학교 조감도.

시설과 사무원 이재신

# 전남의 특성 살린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논의

## 전남방과후학교 정책연구 세미나 개최

면 이하 지역의 토요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초빙 여건을 개선하고, 순회강사를 확대 하는 등 토요방과후학교 우수강사 발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다.

전남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단은 26일 목포상그리아호텔에서 '전남방과후학교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전남의 문화적,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학교현장 의견이 반영된 방과후학교 정책을 개발·추진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연구 결과로 마련됐다. 정책연구의 주요 과제는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역량강화 방안, ▲지역사회 연계 토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모형 개발 등 네가지다.

세미나에서는 주요 연구과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다.

우선 토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관과 단체의 참여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학생 운송비 지원' 등이 논의되고, 대학이 주도하고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된다.

우수강사 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해 면 이하 지역의 강사 초빙여건 개선과 순회강사 확대 방안도 논의된다.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강사풀 활용방안과 우수강사인증제, 외부강사 동호회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을 내실화 하기 위해 현장의 실정에 부합한 예산 배부 방안이 논의 되는 등 다양한 지원 관리 방안도 논의된다.

방과후학교지원단은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5.31교육개혁안에 의해 제안된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존중, 인성 및 창의

성 신장 등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등의 사회적 기능이 추가되어 방과후학교가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였으며, 올해부터 주5일수업제 시행으로 방과후학교의 형태와 운영 주체가 다양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적으로 팽창된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을 높여 방과후학교의 순기능을 극대화 하기위해, 전남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단이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광주교대와 공동 연구를 추진해 왔다.

김선홍 교육국장은 "세미나를 통해 연구 결과가 공유되고 생생한 현장 의견이 수렴되길 바라며, 현장의 실정에 부합한 방과후학교 정책이 수립되어 정규교육과정과 상호보완적인 내실있는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지원단 파견교사 장기용

■ 특집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연구(TIMSS)

# 수학 과학, 왜 배워야 하지?

수학·과학 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 ↔ 자신감과 흥미도는 꼴찌 수준  
수학·과학의 가치인식도 최하위권 - 공부 필요성을 못느껴

<중2 수학에 대한 자신감>

국가	자신있음		약간 자신있음		자신없음	
	백분율	평균	백분율	평균	백분율	평균
이스라엘	31	573	47	504	22	463
미국	24	556	44	514	33	474
영국	17	581	46	516	37	456
영국	16	571	53	514	32	465
헝가리	16	593	35	521	49	466
핀란드	15	580	39	533	46	477
싱가포르	14	662	46	628	40	574
리투아니아	13	579	41	519	46	467
러시아 연방	12	603	43	561	45	501
이탈리아	12	559	44	519	43	460
슬로베니아	11	586	49	521	40	464
대만	7	709	26	670	67	575
홍콩	7	655	37	610	55	561
<b>대한민국</b>	<b>3</b>	<b>723</b>	<b>34</b>	<b>669</b>	<b>63</b>	<b>577</b>
일본	2	~	24	623	73	548
국제 평균	14	539	45	478	41	435

<중2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

국가	좋아함		약간 좋아함		좋아하지 않음	
	백분율	평균	백분율	평균	백분율	평균
싱가포르	32	637	44	610	23	578
러시아 연방	29	567	49	537	22	509
이스라엘	26	536	40	523	35	496
리투아니아	22	531	44	506	34	482
홍콩	19	635	44	595	37	551
미국	19	536	40	515	40	494
이탈리아	18	538	42	507	40	472
호주	16	553	40	520	45	476
헝가리	15	549	35	508	50	491
대만	14	681	33	645	53	568
영국	14	548	44	517	42	484
핀란드	10	560	34	532	57	496
일본	9	621	38	589	53	545
<b>대한민국</b>	<b>8</b>	<b>677</b>	<b>36</b>	<b>649</b>	<b>56</b>	<b>581</b>
슬로베니아	6	544	31	521	63	494
국제 평균	26	504	42	467	31	443

<중2 과학에 대한 자신감>

국가	자신있음		약간 자신있음		자신없음	
	백분율	평균	백분율	평균	백분율	평균
이스라엘	33	568	43	501	24	477
미국	26	565	47	524	27	492
영국	23	579	52	529	25	503
호주	16	575	49	527	35	486
뉴질랜드	14	570	46	519	40	490
싱가포르	14	630	48	600	37	562
홍콩	8	579	47	544	45	520
대만	6	648	27	599	67	543
<b>대한민국</b>	<b>4</b>	<b>652</b>	<b>33</b>	<b>603</b>	<b>63</b>	<b>532</b>
일본	3	631	28	591	69	540
국제 평균	20	536	49	482	31	450

<중2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국가	좋아함		약간 좋아함		좋아하지 않음	
	백분율	평균	백분율	평균	백분율	평균
싱가포르	38	617	46	584	16	542
영국	32	562	45	532	23	500
미국	29	555	43	523	28	500
이스라엘	29	547	37	507	34	501
홍콩	28	561	51	534	21	506
호주	25	559	42	521	33	490
뉴질랜드	24	549	46	510	30	494
대만	17	618	43	571	40	534
일본	15	595	47	566	38	531
<b>대한민국</b>	<b>11</b>	<b>623</b>	<b>43</b>	<b>576</b>	<b>46</b>	<b>531</b>
국제 평균	35	515	44	472	21	450

※ 자료가 없는 국가는 통합 과학이 아닌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각각 조사되었음

우리나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수학·과학 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자신감이나 흥미도는 세계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학평가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연구(TIMSS 2011)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 과학 성취도는 세계 1위, 수학 성취도는 세계 2위였다. 하지만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는 꼴찌 수준을 기록했다. 중학생의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TIMSS 2011은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IEA)가 초등학교 50개국, 중학교 42개국 각각 3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초등학생 4,335명, 중학생 5,167명이 시험을 치렀다.

■ 수학·과학 성취도는 최상위권

초등학교 4학년의 수학 성취도는 세계 2위, 과학 성취도는 세계 1위, 중학교 2학년의 수학 성취도는 세계 1위, 과학 성취도는 세계 3위였다.

성취도 변화에서도 성취도와 성취수준별 비율은 대체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 학력인 학생 비율은 중2 수학을 제외하고 모두 0%로 나타났으며, 수학·과학의 초4, 중2 학생 모두 기초 미달 학생 비율이 TIMSS 2011 참가국 중 가장 낮았다.

남·여학생 성취도는 모두 상승했고, 남·여학생 성취도 차이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내용영역과 인지영역별 성취도, 최상위 수준

수학과 과학을 내용영역(수, 도형과 측정, 자료 표현 등)과 인지영역별(알기, 적용하기, 추론하기)로 구분하여 성취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최상위 수준을 보였다.

중2 과학 '내용영역' 중 화학 7위, 지구과학 5위로,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낮았고, '인지 영역'중 알기 5위로 나타났을 뿐 전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3위 안에 들었다.

■ 수학·과학은 어려워

이런 높은 성취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자신감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은 수학에 대해 '자신있다 11%', '약간 자신있다 50%', '자신없다 38%'로 나타났다. 국제 평균은 '자신있다 34%', '약간 자신있다 46%', '자신없다 21%'였다. 과학에 대해서는 '자신있다 15%', '약간 자신있다 45%', '자신없다 40%'로(국제 평균 '자신있다 43%', '약간 자신있다 36%', '자신없다 21%') 나타났다.

중학생도 비슷했다. 중학교 2학년은 수학에 대해 '자신있다 3%', '약간 자신있다 34%', '자신없다 63%'로 나타났다. 국제 평균은 '자신있다 14%', '약간 자신있다 45%', '자신없다 41%'였다. 과학에 대해서는 '자신있다 4%', '약간 자신있다 33%', '자신없다 63%'로(국제 평균 '자신있다 20%', '약간 자신있다 49%', '자신없다 31%') 나타났다.

■ 수학·과학은 재미도 없어

수학과 과학에 대한 흥미도도 마찬가지였다. 초등학교 4학년은 수학을 '좋아한다 23%', '약간 좋아한다 48%', '좋아하지 않는다 29%'(국제 평균 '좋아한다 48%', '약간 좋아한다 36%', '좋아하지 않는다 16%')였다. 과학의 경우 '좋아한다 39%', '약간 좋아한다 45%', '좋아하지 않는다 16%'(국제 평균 '좋아한다 53%', '약간 좋아한다 35%', '좋아하지 않는다 12%')였다.

중학교 2학년은 수학을 '좋아한다 8%', '약간 좋아한다 36%', '좋아하지 않는다 56%'(국제 평균 '좋아한다 26%', '약간 좋아한다 42%', '좋아하지 않는다 31%')였다. 과학의 경우 '좋아한다 11%', '약간 좋아한다 43%', '좋아하지 않는다 46%'(국제 평균 '좋아한다 35%', '약간 좋아한다 44%', '좋아하지 않는다 21%')였다.

■ 수학·과학을 왜 공부하지?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에 대한 가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 수학의 경우 '가치 있다 14%', '약간 가치 있다 52%', '가치없다 34%'(국제 평균 '가치 있다 46%', '약간 가치 있다 39%', '가치없다 15%')로 나타났고, 과학의 경우 '가치 있다 14%', '약간 가치 있다 40%', '가치없다 46%'(국제 평균 '가치 있다 41%', '약간 가치 있다 33%', '가치없다 26%')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조사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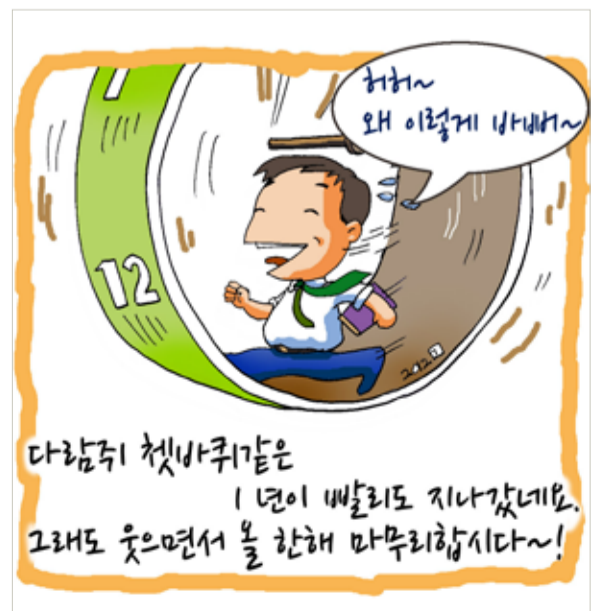
■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은 보통

우리나라 교사들은 교수법 및 교육과정에 대한 활동 참여율이 국제 평균에 비해 대체로 높고, 수학·과학과 정보 기술의 통합에 대한 활동 참여율이 국제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학·과학 모두 초4에 비해 중2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책기획담당관실

교육만평

여수여명학교 교사 고영중



목포교육 2012 실적보고회 및 목포교육 대상 시상, 화순교육상 시상

잘 가르치려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

목포교육대상 - 목포홍일중 김진영 / 특별상 - 박기철  
화순교육상 - 사평초 윤인순, 사평중 정영희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홍)은 지난 17일 신안비치호텔에서 '목포교육 2012' 실적보고회 및 목포교육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목포교육지원청 교육미래위원, 관내 유치원과 각급 학교 교원 및 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원, 학부모 및 시민들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이 수여됐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14개 영역, 총 30명의 수상자들 가운데 목포홍일중학교 김진영 교사가 목포교육대상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목포청소년사랑지킴이단 박기철 단장은 특별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 이은 목포교육 실적 보고회에서는 올 한 해 목포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희망 목포교육의 주요 교육활동과 목포항초등학교, 목포홍일중의 우수 교육활동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기홍 교육장은 "교육은 관계다. 좋은 교사의 조건 중 하나는 귀 기울여 듣기이고, 귀 기울여 듣기란 공감의 출발점이고 관계의

시작이다. 따라서 잘 가르치려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이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그런 관계 맺음의 정형을 보여주신 목포교육의 밝은 희망이자 전남 교육의 큰 자산이다"라고 수상자들을 격려하면서 2013년도에도 명품 목포교육을 실현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류남규)은 지난 14일 교직원과 운영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교육발전을 위해 애쓴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시상식을 거행했다.

금년 한 해 동안 화순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로 학생 독서지도와 학급경영 우수교사로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지정에 공헌한 사평초 윤인순 선생님과 화순영재교육원 인문반 지도와 독서·토론수업 선도교사로서 수업모형 개발에 앞장선 화순사평중 정영희 선생님이 화순교육상을 수상했다.

2012. 학교평가 전 영역에서 우수상을 받은 이양초 이흥상 교장선생님과 교실수업개



선에 노력한 화순초 수석교사 이점자 선생님 등 24명의 선생님과 교육지원활동에 애쓴 화순초 행정실장 조은희 선생님 등 5명의 교육행정 직원은 교육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화순교육여건 개선과 내고장 학교 발전에 기여한 이양초등학교 양동복 운영위원장, 아산초 김용호 운영위원장, 화순중 이민자 학부모회장 화순동면중 손영란 운영위원 4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류남규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상자들



의 노고를 치하했고 아울러 화순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800여 명의 화순관내 교직원과 학교 지원 교육에 동참해 주신 학부모와 지역민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리고 화순교육 선진화 여건 조성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화순군과 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목포교육지원청 장학사 김보경  
화순교육지원청 장학사 최희철

실천하는 발명교사로,  
창의적 발명인재 양성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도중 임왕빈 교사, 2012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 수상



여도중학교(교장 김재택) 임왕빈 교사(사진)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12년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상으로, 학교 현장의 발명교육과 발명교육 담당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제정된 이후 올해 2년째다.

2012년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은 지난 9월 1일 서류를 접수해 전국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6명의 선생님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은 발명교육 운영실적, 발명교육 입상실적, 연구실적, 연수 이수실적, 발명교육 확산실적 등을 중심으로 발명교육의 기여도를 평가해 선정했다.

임왕빈 교사는 지난 15년간 각종 발명, 로봇, 로켓 관련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지도해 왔다.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여도중학교 발명동아리 담당교사, 로봇과 발명교육 연구학교 협의체위원 등을 맡으면서 과학과 발명마인드 확산, 각종 발명교육에 앞장섰다.

임교사는 그 동안 청소년미래상상기술경진대회 금상(2009년 송용원, 주영진), 제12회 LG생활과학아이디어공모전 최우수상(2010년 홍수화), 제13회 LG생활과학아이디어공모전 최우수상(2011년 박홍규)수상 학생을 지도했고, 2012년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에 학생 5명이 최종 최종 선정되는데 기여했다.

또한, 2003년 이후 3명의 발명 장학생을 배출시켰으며 그간 학생들의 발명아이디어로 11건의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게 하는 등 발명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진로지도에도 남다른 역량을 발휘했다.

뿐만아니라, 교사와 학생 발명 활동을 위한 순회강연, 광주남구청 발명강사 활동, 전남 지식재산센터 발명 강사 활동을 통한 발명교육 확산에도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과 실적을 인정받아 임교사는 발명교육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임 교사는 지난 2004년에는 발명의날 발명교육유공 산업자원부장관상과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수상했고, 2005년도에는 행정자치부선정 신지식인(교육분야)에 선정되었을 뿐만아니라, 특허청장상 등 수많은 수상을 한 바 있다.

임왕빈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에 '기술과 발명' 단원이 신설될 정도로 국가적으로 발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발명교육과 발명문화저변확대를 통해 큰상을 수상하여 발명동아리 지도교사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또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선생님들과 학교, 교육청, 특허청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러한 큰상을 수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발명인재 양성을 위해 실천하는 발명교사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교직원 명예기자 오문수

아껴 쓴 세월이야기



매산고 문왕철 교사,  
외국인한글학교 이야기 책으로 펴내

순천매산고등학교 문왕철 교사의 '아껴 쓴 세월 이야기'가 출판됐다. 이 책은 순천 매산고등학교에서 30여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며 인재 교육과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노력해 온 문왕철 교사가 순천외국인한글학교를 운영하며 겪은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2010년 교과부와 조선일보사가 공동 주관한 '올해의 스승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1년 법무부 주관 '세계인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문왕철교사는 7년간 다문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왔으며 다문화 봉사활동을 통하여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전남교육 신문 20호 (2011년 6월 20일 발행) 소개>

서울 쿼터 출판사에서 출간된 '아껴 쓴 세월 이야기'는 다문화 희망 사회를 위해 씨를 뿌리는 그의 삶과 봉사 이야기로, 저자인 임교사는 "이책을 통해 독자 또한 이웃과 남을 먼저 섬기고 돌보는 마음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문왕철 교사는 2012년 여수MBC 주관 '여수MBC 시민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제 3기 전남교육 신문** 명예기자단 2013년 1월 25일

**월 2회 발행** 현재 10일 간격으로 발행되던 전남교육 신문이 2013년 부터는 월 2회 발행됩니다. 발행일은 매월 10일과 25일이며, 발행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날 발행됩니다.

**16면 발행으로 다양한 소식을** 12면 발행되던 전남교육 신문이 2013년부터 16면 발행됩니다. 더욱 재미있는 읽을거리와 풍성한 정보로 교육가족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전남교육 신문에 실렸으면 하는 내용과 의견은 260@hanmail.net으로 보내주세요.

**우편배송 확대** 전남교육 신문을 접하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2013년부터는 많은 학부모님들께 우편으로 전남교육 신문을 보내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신문 구독을 원하시거나 메일링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원하는 학부모님들은 전화(061-260-0993)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통”의 공간 2013년**

# 전남교육 신문이 새롭게 바뀝니다.

■ **연재 소설을 찾습니다.**  
학교를 배경으로, 혹은 교육을 주제로 한 재미있는 작품을 기다립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채택된 작품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생생한 현장을 소리를 기다립니다.**  
전남교육 신문에서는 여러분의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 260@hanmail.net 문의 전화 : 260-0808)

■ **누리집 안내**  
보내주신 모든 기사는 전남교육 누리집(www.jnenews.or.kr)에 게재 됩니다. 신문에는 지면 관계상 실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또한, 누리집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도서관서비스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세요

### 목포공공도서관, 스마트폰 이용한 모바일 라이브러리 서비스 시작

목포공공도서관(관장 이한근)은 지난 12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서를 대출하는 '모바일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모바일 라이브러리'란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서검색, 도서대출 예약, 도서대출 연기, 희망도서 신청, 전자책 읽기 등의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 모바일 형태로 회원증을 저장하여 편리하고 다양한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서관 방문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스마트폰 Play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리브로피아(libropia)'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회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인증 받으면 된다.

목포공공도서관 이한근 관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라이브러리서비스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오프라인 기반이었던 기존 도서관 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공공도서관 주무관 윤현영

## 드라마치료 과정을 배워 보세요

- 주 최 : 현대드라마치료 연구소
- 주 관 : 현대드라마치료 연구소 광주·전남지부 / 청예단 전남지부
- 교육장소 : 무안 월선리예술인마을 다목적회관
- 일시
  - 입문과정 1차 : 2013. 01. 10(목) 14:00~2013. 01. 12(토) 14:00
  - 입문과정 2차 : 2013. 01. 17(목) 14:00~2013. 01. 19(토) 14:00
  - 보 수 과 정 : 2013. 01. 25(금) 10:00~2013. 01. 26(토) 17:00
- 대 상 : 드라마치료에 관심있는 분
- 모집인원
  - 입문과정 1차 : 선착순 50명
  - 입문과정 2차 : 선착순 50명
  - 보수과정 : 입문과정 1차, 입문과정 2차 수료생
- 문의전화 : 061-274-1605, 담당(임혜련 교육/상담 실장)
- 신청방법 : 이메일(kchsik@hanmail.net), 신청서는 홈페이지(www.youthlove.net)에서 다운로드하고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됩니다.

## 취업중심 교육과정으로 명품 특성화고 육성

### 특성화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전남 특성화고 직업교육선진화 추진 연찬회 개최

전남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특성화고 교장과 교사 180명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 선진화 추진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에서 전남교육청은 취업중심 특성화고 육성정책안을 발표하고 "2013년부터는 취업중심 특성화고 육성정책을 학교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특성화고 정책안은 취업중심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특성화고 체제개편안과 산업수요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 특성화고 체제(학과)를 전남전략산업과 미래전략산업에 적합하게 개편하고, 학교수 감축을 통해 특성화고 경쟁력을 높ی겠다"고 말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MC(Mutual Creative)교육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분임토의를 통해 나온 교원들의 의견을 정책연구에 반영해 2013년에 도입되는 정책에 반영하겠

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구희태 미래인재과장은 "2013년부터는 취업중심 특성화고 육성을 위해 취업중심으로 체제(학과)를 개편하고, 교육과정을 취업중심으로 개편하여 전남이 명품 특성화고를 육성하는 전국적인 선도모델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미래인재과 장학사 김정선

### 가거도에서는 사이버 가정학습이 효자네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가거도. 신안혁신중학교(교장 조기호) 가거도 분교장 1, 2학년 학생 7명 모두는 이덕형 선생(영어/복식학급 담임)의 안내에 따라 전남사이버가정학습 학급배정반으로 선정되어 지난 1년 동안 학습해 왔다.

도시와 달리 교육시설이라고는 오로지 학교뿐인 가거도에서 사이버학습은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는 유일한 도구였다. 도교육청의 배려와 학교예산으로 구입한 책상겸용 컴퓨터는 사이버학습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 되었다.

사실 가거도분교장은 지역 여건상 어려움이 많았다. 가끔은 인터넷이 잘 연결되지 않아 애를 먹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꾸준히 학습했고, 학생 모두가 지난 11월에 100%의 진도율을 보였다. 성적도 점점 좋아졌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영어듣기평가에서

도 성적이 크게 올랐다.

이러한 노력으로 학생들은 '2012. 전남사이버가정학습' 표창을 받았다. 전남 중학교 우수학생 전체 8명 중 5명이 포함되는 놀라운 성과였다. 지도교사 표창도 함께 받았다.

이덕형 교사는 "학생들에게 '하면 된다'는 성취의욕을 갖게 하여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된다"며 소감을 밝혔다.

특히, 모든 시험에서 100점을 획득한 1학년 임다희 학생은 "앞으로도 전남사이버가정학습을 잘 활용해 NEAT(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를 포함한 영어능력 향상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도서벽지학교 학생들에게 우수한 학습자료 서비스와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와 벽지간의 교육격차를 해소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혁신중학교 가거도분교장 교사 이덕형



### 영암교육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장동연)은 지난 12일 각급학교 교장과 교원, 영암교육미래위원, 순회연수지원단 등 100여 명이 함께하는 '2013. 영암교육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학교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1년간 실천한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선보였다. 사례를 듣고 난 한 학교장은 "2013학년도에는 우수한 사례를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실천해 보겠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참가 소감을 말했다.

장동연 교육장이 직접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방과후학교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 교원

업무 경감 방안, 독서·토론교육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황용주 영암교육미래위원장은 "영암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에도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여 우리 지역의 인재를 키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장동연 교육장은 토론을 정리하며 "오늘 제시된 의견은 2013. 영암교육에 충분히 반영해 학교교육에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영암교육가족 모두가 열정과 노력을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영암교육지원청 장학사 김권용

### 관심만 있으면 모든게 가능해요

여천중학교(교장 정석진)는 전남교육청에서 주관한 기술·가정 기능 경진대회 총 5개 분야에서 7개의 메달을 수상했다. 금속가공 분야에서는 황태용 학생이 금상을, 고무진 학생이 동상을 수상했고, 컴퓨터 디자인 영역에서는 최은정 학생이 동상을 수상했다. 한국요리에서는 김동민 학생이 금상을, 한정현 학생이 동상을 수상했고, 서양요리에서는 신희수 학생이 은상을, 생활소품에서는 황인우 학생이 동상을 수상했다. 금속가공 분야에서 수상한 황태용 학생은 "평소에 만들기를 좋아해서 출전 했는데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어떠한 분야라도 관심을 갖고 노력 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여천중 교사 유태숙

# 다양한 문화가 함께하는 우리학교 벽화 구경 오세요

청계초등학교(교장 윤길중)는 글로벌 선도학교 운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학교 서편 벽면 약 100m 구간에 15개국의 특징을 살려 디자인한 벽화를 그리는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세계는 모두 하나’라는 주제로 다문화 학생과 다국적 사회에 대한 상호 이해를 고양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벽화 제작에 앞서 학급별로 그리고 싶은 나라를 선정하고, 각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와 자연환경을 찾아 시안을 직접 그려보는 활동을 했다.

특히, 다문화 학생이 포함된 학급에

## 청계초, 15개국의 문화적 특징 벽화로 제작



서는 다문화 학생의 모국나라를 선정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2010년 MOU를 맺은 목포대학교 미술과 학생 34명이 참여해, 학생들이 마련한 시안을 재구성해 벽면에 옮

겨 같이 색칠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임예진(6학년) 학생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그린 벽화를 통해 다문화 친구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학교가 밝아져서 정말 좋다”고 소감을 말했다.

윤길중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그린 벽화를 통해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키웠으며, 다문화 및 일반학생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청계초 교사 윤재림



## 오카리나 선율에 ‘진도 아리랑’을 싣고!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최은식)은 지난 14일 초·중학교 교사와 교직원 106명을 대상으로 오카리나 연수를 실시했다. 학생 개개인의 음악적 연주기량을 높이고 감수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1인 1악기 연주 능력 향상과 애향 진도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고장의 민요 ‘진도 아리랑’을 연주함으로써 고장에 대한 긍지와 애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연수였다. 최근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아리랑’이기에 이번 행사는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초·중학생 전원에게 오카리나를 구입·배부하고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에게도 개인당 악기를 배부함으로써 연주와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했고, 전문강사를 초청해 심도있는 실기 연수를 진행했다.

진도교육지원청 장학사 채정화

## 썰매를 타고 신나게 씽씽~

강진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학생 겨울맞이 썰매체험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식)은 지난 21일 영암에 소재한 0리조트에서 겨울맞이 눈썰매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관내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하얗게 쌓인 눈 위에서 썰매를 타며,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은 겨울에만 체험할 수 있는 눈썰매 타기를 통해 여러 신체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과 함께 단체 활동을 통한 협동과 봉사 및 질서 등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눈썰매 체험 후에는 삼삼오오 모여 앉아 양초 공예로 동물 모양, 눈사람 모양 등 다양한 표현활동을 전개했다.

마지막 체험은 레스토랑 체험.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음식주문 방법, 다양한 음식들의 식사방법,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식사예절을 떠올리며 체험에 참가했다.

체험학습에 참여한 한 교사는 “모처럼 학



교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해서 좋았으며, 이번 체험이 사회성 함양 및 생활기술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강진교육지원청 장학사 김혁미

## 수업 방법을 개선하기 전에 수업을 보는 방법을 바꿔라...

장흥교육지원청, 교실수업 개선 컨설팅장학 연찬회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숙)은 지난 12일 장흥군민회관에서 ‘2012. 교실수업 개선 컨설팅장학 역량강화 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연찬회는 ‘수업과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진행됐고, 관내 유·초·중·고 교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초청강사로 나선 서근원 교수(대구 가톨릭대학교)는 ‘수업개선과 수업보기, 교육의 질적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 강의를 통해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방법을 개선하기 이전에 수업을 보는 방법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우리의 학교가 어떤 곳으로 변모해야 하는지, 그 학교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수업컨설팅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아이 눈으로 수업하기”를 강조했다.

박인숙 교육장은 “앞으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수업컨설팅지원단’을 중심으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고, 특히 “교실수업개선 컨설팅은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특색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수업컨설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마음을 열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흥교육지원청 장학사 장사익

# 인도네시아 외할머니와 통화할 수 있어 기뻐요

## 목포교육지원청, 어머니나라 말하기 대회 개최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홍)은 지난 13일 관내 7개국 다문화학생 52명을 대상으로 목포교육청대회의실에서 '제1회 어머니나라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 대회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어머니에게 전수 받은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다중언어 구사능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글로벌리더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에 앞서 목포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관내 105개 다문화 가정에 일본,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필리핀 등 7개국의 국어교과서 411권을 보급하고 어머니가 직접 지도하게 하는 등 다문화자녀의 다중언어 습득을 위한 지원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관내 7개국 74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어머니나라 국어의 읽기와 쓰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기홍 교육장은 대회 인사말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미래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적응한다면 이들이 갖는 다문화 환경의 장점과 다중언어 구사 능력을 바

탕으로 머지 않아 어머니나라의 훌륭한 대통령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며 지속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1회 어머니나라 말하기 대회는 일본, 중국,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등 다문화 학생들이 자신의 꿈,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가족자랑, 외갓집 나라의 즐거웠던 경험 등을 주제로 열린 경연을 펼친 결과 목포용해초등학교 김아름 학생이 Global Best Leader 상을, 목포애향초 송민우 학생이 Global Leader상을 수상했고, 목포남초 양화선 외 28명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Global Best Leader상 1명에게는 교육장 상장과 백만원의 상금이 수여 되었고, Glob-

al Leader상 외 28명에게도 교육장 상장과 상금 총 460만 원, 온누리상품권 등 14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졌다.

대회에 참가한 학부모 하립민(중국)씨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딸 민우가 어머니나라의 말을 더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고, 이를 통해 가족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돼 너무 즐겁고 보람 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용해초 김아람 학생은 "인도네시아의 외할머니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어 보람 있고 기쁘다.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목포교육지원청 장학사 송복희



## 2012. 초·중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재익)은 지난 12일부터 1박 2일동안 관내 초·중 14개교 15팀이 참가하는 '2012. 초·중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2,000여 명을 중심으로 모신 페스티벌은 오케스트라, 국악, 관악 분야 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연습한 결과를

연주회를 통해 선보인 자리였다.

장재익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21세기에 필요한 인재는 감성이 풍부하면서 창의·인성이 갖추어진 사람이다"면서 "2012년을 여수 감성예술교육의 원년으로 삼아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교육을 추진해 왔다. 학생오케스트라단은 무더운 여름날과 겨울 찬바람에도 꾸준히 연습하였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페스티벌에 참여한 관기초 서인하 학생은 "오늘 공연을 하면서 큰 무대에서 연주하는 내 모습이 자랑스러웠고, 친구들과 같이 연주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부모 문주희 씨는 "우리 아이가 연습하면서 힘들어 할 때는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 공연을 보고 포기하지 않기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 아이의 의젓해진 모습에 많이 기쁘다."고 소회를 말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앞으로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재능과 바른 품성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풍부한 감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여수교육지원청 장학사 김병무

## 제2회 무안 중국어 말하기 대회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양진용)은 지난 17일 무안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무안 중국어 말하기 대회를 실시했다.

중국어를 말하기 대회는 무안 관내 초·중학생 총 21개팀 54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2년 여 동안 방과후학교 중국어 교실에서 갖고 닦은 중국어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되었다.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군 단위에서 치러지는 중국어 말하기 대회는 앞으로 무안 지역의 학생 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 높은 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양진용 교육장은 "우리 무안에서의 중국어 교육은 글로벌 인재육성과 더불어 세계로 향한 미래지향적 교육"임을 강조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 지도에 최선을 다해준 방과후학교 중국어 강사와 대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준 학생들에게 고맙다"며 더욱 중국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더

욱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삼향초등학교 대표로 참여한 이승호 외 3명은 '동동의 생일'이라는 주제로 여러 장면에서 소개를 멋지게 하였고, 남악중의 임다희, 임단비 자매는 원어민에 뒤지지 않는 말하기 실력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망운초등학교 박한서외 4명은 '달팽이, 개미, 꼬꼬리'라는 주제로 연극 형식으로 발표하였고, 무안초등학교 이단비, 이정현은 '자랑스러운 무안'이라는 주제로 우리 무안의 특산물, 지리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취지에 걸맞은 수준 높은 대회였다.

무안교육지원청은 한·중 교류에 대비한 중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3년 1월 중순 신 HSK 자격증 취득자 8명을 대상으로 17박 18일 중국 청화대 어학연수를 비롯하여 1월 25일 중국 언어 문화체험 등을 준비 중이다.

무안교육지원청 장학사 이현권

## 목포공공도서관, 찾아가는 다문화프로그램

### 그림책 읽어주는 엄마

목포공공도서관(관장 이한근)은 지난 달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목포시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해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프로그램 '그림책 읽어주는 엄마'를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자녀 독서지도를 위한 좋은 그림책 고르는 방법과 그림책 읽어주기 기법을 알려주는 기회가 됐다. 또 자녀와 책을 함께 읽고 나서 대화하기, 다국어로 된 책 읽고 난 후 독후활동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그 동안 자녀들의 독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결혼이주여성들은 동화구연가 이영희 선생님이 풀어놓은 다국어로 된 책 보따리를 하나하나 꺼내 서툰 한국어 실력이지만 우리 그림책을 읽어보

는 실습시간도 가졌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그림책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강사의 구연동화에 푹 빠졌다.

이러한 그림책 읽기 교육은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어휘능력과 문장 능력을 향상시키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정서적인 안정감과 교감을 이뤄냈다.

목포공공도서관 이한근 관장은 "지역의 다문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 적응, 정서적 안정감 및 문화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다문화가정 조성과 지역사회 화합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공공도서관 주무관 서미경

# 포토보이스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 건강문제나 사회적 이슈를 사진으로 찍고 의미를 공유

장흥 관산초등학교(교장 하재원)는 장흥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참여형 건강증진 모델 학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산초등학교 학생의 영양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해결·개선해 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과 12월에 실시한 포토보이스(Photovoice) 프로그램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큰 관심으로 즐거운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포토보이스란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나 사회적 이슈를 사진으로 찍고,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함으로써 경험과 관심, 사회적 문제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들의 세계에 대

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는 활동을 말한다.

관산초등학교 학생들은 11월부터 선생님과 함께 관산을 주변을 돌며 영양 및 건강과 관련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학예발표회 때 전시해 학부모님과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한 학생들은 “포토보이스를 처음 시작할 때는 생소하고 막막했지만 하면 할수록 사진을 통해 내 생각을 전할 수 있다는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2013년에는 건강지도자 교육 및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해 포토보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발견된 건강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관산초 보건교사 박란



## 麗珠 絃의 국악 소리가 또 하나의 전통으로

### 여수여중 국악연주단 창단식 및 MOU체결

여수여자중학교(교장 임희숙)는 지난 13일 학생들의 다양한 음악 활동을 위해 교과부에서 지원한 사업인 학생 오케스트라 ‘麗珠 絃 국악연주단’ 창단식 및 MOU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MOU체결 행사에서는 난계국악 기제작촌 대표 조준석, 진도국악고 교장 안병호, 여수시립국악단 단무장 권인홍, 총동창회장 김옥연을 비롯해 학생과 학

부모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국악연주단은 학생들에게 1인 1악기 연주 능력을 길러 창의적 표현능력과 바른 인성을 기르고 문화소외지역학생들의 소질개발 및 예술적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0여 명의 학생들을 단원으로 창단됐다.

임희숙 교장은 인사말에서 “여수현의 국악기 소리가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예술성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 함양에 기

여하고, 개인의 소질을 계발하고,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연 총동창회장은 “이 연주단이 여수여중 인성계발의 시금석이 될 것이며, 또 하나의 전통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연습실은 지역사회, 총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어 방치되고 낙후되어있는 생활관을 리모델링하였

으며, 여주관으로 명명하고 현판식도 함께 가졌다.

앞으로 교내축제, 지역행사, 지역교류 연주회 및 관련 각종 대회 참가를 통해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모듬북과 플룻, 국악관현악기를 확충해 국악관현악단으로 확대하고, 합창반, 난타반, 댄스동아리반과 연합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여수여중 교감 김용운

## 손때 묻은 헌책도 함께 나눠요



나주공공도서관(관장 주영신)은 불용자료로 폐기 처리해야 할 헌책과 과월호 잡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나주공공도서관 현관 로비에서 ‘헌책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헌책 나눔 행사’는 손때 묻은 책이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나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뜻 깊은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 285명의 지역주민에게 175권의 도서와 958권의 과월호 잡지를 나눠주었다.

또한, 나주공공도서관은 지난 10월 도서와 서가 등의 물품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에 기증 신청 받아 ‘백민원, 대호지역 아동센터’ 등 4개 기관에 1,184권의 도서와 서가, 책상 등의 물품을 지원했다.

나주공공도서관(관장 주영신)은 지역주민

들이 독서에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종합자료실 개관시간을 저녁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나주공공도서관 관계자는 “우리를 매혹했던 책의 기억을 떠올리며 오늘 밤 가까운 도서관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공공도서관 주무관 강민수

### 여수동초, 전국웅변대회 대상

지난 15일 목포시 목포문학관에서 열린 제64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 전국남녀웅변대회에 참가한 여수동초등학교(학교장 진병택)는 지난해에 이어 단체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대회에 참석한 6명의 학생 중 3학년 장신영 학생이 대상, 4학년 전현진 학생이 특상을, 나머지 4명의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 동안 아침 일찍 학교에 등교해 학교장이 자투리 시간과 전남도교육청에서 주창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학교 특기 교육을 웅변으로 정하고 직접 교장실에서 갖고 닦은 실력을 큰 함성으로 전국에 힘껏 뽐 낸 결과였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웅변을 잘 할 줄 몰랐다 하면서 학교교육의 효과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여수동초등학교는 웅변 명문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교직원 명예기자 진병택



**사랑으로 전하는 나눔 콘서트**

나주교육지원청(신기평)은 지난 14일 나주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서 '비단고를 봉사대 - 靑 for Do(청포도)'의 세 번째 연합활동으로 '나눔 콘서트'를 실시했다. '비단고를 봉사대 - 靑 for Do'는 나주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5개교(나주초, 나주중앙초, 영산포초, 나주중, 영산중)의 봉사활동 동아리 40명으로 구성되어, 자원봉사 연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환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나눔 콘서트는 특별히 문화적으로 취약한 노인전문요양원 어르신들에게 그동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수혜 학생들에게 자존감 향상을,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나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나주 학생들이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획득과 동시에 자신의 능력 발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으며, 신기평 교육장은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나눔과 배려의 경험이 자발성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주교육지원청 장학사 김영경

**형진아! 힘내라**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동기)은 급성 간부전증으로 간 이식수술을 받은 해남중 임형진 학생을 돕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금 모금 운동에 적극 나섰다.

해남 각급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도 작은 정성을 보태고자 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신문과 해남우슬라이온스 클럽이 중심이 되어 '형진이 돕기 후원회'를 결성해 1일 찻집을 운영하는 등 치료비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지불해야 할 1억원 정도의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실정이다.

전남교육사랑장학회와 해남교육지원청 전직원 및 각급학교 학생, 교직원이 모금한 성금 1,625만원이 아버지 임영수(44)씨에게 전달되었다.

해남교육지원청 장학사 서영욱

**나눔으로 따뜻한 겨울을**



**■ 사랑의 김장김치를**

순천북초등학교(교장 박채구)는 지난 14일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해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로 온정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20여명의 학부모회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이날 만들어진 김장 김치는 4kg 단위로 박스 포장되어 저소득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30여 가구에 전달됐다.

현경북초등학교(교장 정정범)는 지난 12일 학교 급식실에서 학부모회 회원과 학생, 교사가 참석해 '사랑의 김장하기' 행사를 펼쳤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과 행복을 전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올해로 3년째다. 이날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직접 담은 김치는 학교의 한부모 가정과 학교 주변 마을에 전달됐다. 김치를 전달하며 학생들은 마을회관에 방문해 어르신들께 현악기 등 준비한 작은 공연을 선보였다.

**■ 천체망원경으로 과학자의 꿈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사회봉사단은 완

도군 고급초등학교에 과학도서와 천체망원경, 3D TV 등 천 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 기부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한 박호수 연구원은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과학 꿈나무로 자라나도록 과학 관련 도서를 기부한다. 매년 5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기부하는데 고급초등학교가 선정됐다. 학교의 요청에 의해 천체망원경과 3D TV 1대 씩을 같이 기부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과학 공부를 하는데 도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부 물품을 전달한 박호수 연구원은 고급초등학교 76회 졸업생이며 부모는 현재 고급면 농사리에 거주하고 있다.

**■ 어르신들을 찾아**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숙) 사랑나눔 봉사동아리 30여 명은 지난 17일과 20일 이틀간 장흥군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목욕봉사활동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사랑나눔 봉사동아리 회원은 '정남진노인요양원, 안양사랑의 집, 장흥노인전문요양원'을 찾아, 어르신들과 웃음치료활동 함께하기, 책임기, 감압 싸드리기, 쾌적하고 포근한 환경속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내의 청소를 실시했다. 한 어르신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니까 젊어지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으시다"면서 매우 흡족해하시고 과일도 서로 먹여주는 등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관)은 지난 17일 봉산면 마향경로당과 백동에 소재한 삼거리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떡국과 과일을 전달했다.

장흥관산초등학교(교장 하재원)는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배려와 나눔을 연중 실천하고 있다. 관산초등학교는 전교생이 함께하는 사랑의 돼지 저금통 모금과 따뜻한 마음을 더하여 1학기에는 전교생이 경로당과 양로원을 방문하여 위문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2학기에는 시설 돕기 결연기관인 장흥노인전문요양원(소망원)을 찾아 위문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난치병 학생에게 온정의 손길**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기평)은 지난 17일 희귀병으로 치료중인 나주중앙초등학교 강민규 학생과 어머니를 찾아 전 직원이 모금한 200여만 원을 위로금으로 전달했다

또한, 관내 초·중학교 소년 소녀가장 13명과 나주시 송월동지역 독거노인 6명 등 불우이웃에게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나주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적립하고, 돼지 저금통에 잔돈을 모아 전달하는 '1004운동'을 꾸준히 펼쳐 연말에 소년 소녀가장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웃사랑 운동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 나주교육지원청 직원 30여명이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장애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계산원과 이화영아원을 찾아 후원품을 전달하고, 목욕시키기, 실내의 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쳐 귀감이 된 바 있다.

순천북초 교사 정희수  
현경북초 교사 이민우  
고급초 교사 신호진  
장흥교육지원청 주무관 이미은  
담양교육지원청 장학사 나정숙  
관산초 교사 박기석  
나주교육지원청 주무관 김선복

# 한 달에 한 가지 새 습관을

## 고흥교육지원청, 자녀교육 콘서트 - 습관이 미래를 만든다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류제경)은 지난 6일 학부모와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해평 교수(전남인성교육진흥회 사단법인 박약회)를 초빙해 '자녀교육 콘서트 - 습관이 미래를 만든다'를 마련했다.

류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습관은 인간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바른 행동의 꾸준한 반복은 인성으로 형성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으로 작용하고 고흥교육의 경

쟁력을 높여 줄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박 교수는 전통적인 가치가 날로 사라져가는 시대에 꼭 필요한 자녀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부모를 위한 인성교육 실천 매뉴얼을 제공했다.

그가 말한 실천방안은, 가족이 함께 모여 감화자료를 읽고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감화자료 읽기→요약을 통한 내용 상기하기→교훈 확인→자료와 관련한 각종 경험 이

야기하기→실천할 일 한 가지씩 정하기→실천 확인하기>의 6단계다. 그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면 가족 구성원 모두 만족하는 바른 습관이 형성됨을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고흥남양초 이정숙 교장은 '한 달에 한 가지 새 습관 기르자' 주제로 바른 습관 형성의 단계적 실천 방안으로 교사, 학생이 참여하는 실연을 강연 중 제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바른 삶의 속에 숨어있는 의

미성을 느끼고 바른 습관을 찾아 꾸준한 실천하여 몸에 베이도록 하는 습관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모두들 입을 모았다.

고흥교육지원청에서는 바른 변화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여가는 품격 있고 문화적 활력이 넘치며, 경쟁력 있는 고흥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부모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고흥교육지원청 장학사 박종성



##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제5회 평생교육 발표회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임태준)은 지난 5일 교원과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의 교육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제5회 평생교육발표회'를 개최했다.

'내가 있어 세상은 더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평생교육 발표회는 평생교육수강생들이 삶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지역주민과 교직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갤러리 린(隣)에서는 한글서예, 한문서예, 전통구방공예, 칠보공예, 수채화, 한국화를 학습했던 수강생들의 심혈을 기울인 84작품이 전시되어, 가족과 함께 관람하며 성취의 기쁨을 누렸다.

공연장에서 펼쳐진 평생교육 발표회

는 마술, 스포츠댄스, 드럼, 바이올린, 기타, 가야금, 플루트 연주, 사물놀이, 한국무용 공연 등에 150여 명의 출연진과 500여 명의 관객이 함께하며 배움과 즐거움으로 살맛나는 인생을 펼쳐가는 평생교육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임태준 관장은 "이번 발표회는 1년 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지역민과 함께하면서 문화와 예술을 마음껏 향유하고 자기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교육가족들이 평생교육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평생학습 문화가 지역사회에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연구사 박민순

## 목포 · 함평공공도서관, 청소년자원봉사 우수터전 선정



목포공공도서관(관장 이한근)과 함평공공도서관(임종문)은 지난달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주관으로 개최된 '2012년 청소년자원봉사 우수터전 인증식'에서 자원봉사활동 우수터전으로 선정됐다.

이날 인증식은 제13회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과 함께 전남지역 청소년자원봉사활동기관 316개 중 목포공공도서관과 함평공공도서관을 비롯해 20개 기관이 우수터전으로 선정됐다.

목포공공도서관은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www.dovol.net)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봉사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 및 도서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봉사활동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목포공공도서관 이한근 관장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앞으로도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우수터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공공도서관은 기존의 도서대출, 정리, 환경정비 등의 단순한 자원봉사는 물론 다채로운 문화활동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를 통해 인간 존중 정신과 사회성 개발,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방법도 다양화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함평공공도서관 임종문 관장은 "청소년들이 봉사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해 왔다면서 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좀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공공도서관 주무관 배승희

함평공공도서관 주무관 김효원

## 무안초 핸드볼 메카로 우뚝서다

무안초등학교(교장 조병춘)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남 무안스포츠파크와 무안고등학교에서 열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장배 2012 꿈나무 핸드볼대회에 출전하여 감격의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에 오르기 전 8강전에서 우승후보였던 강원도 황지초를 15 : 14로 꺾고 올라간 후 준결승과 결승에서 정읍서초와 대전 유천초를 연달아 꺾었다.

이번 대회 우승은 강원도 삼척에서 있었던 제67회 전국중별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 강원도 태백에서 있었던 제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에서 동메달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로 2012년 마지막을 대미

로 장식했다.

김철진 감독과 강혜경 코치의 지도아래 15명의 여학생들은 방과후에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였으며 밤에는 보충학습까지 해가며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 이루어낸 결실이었다.

지난 11월에 열린 2012년도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핸드볼대회에서는 무안초등학교 핸드볼 남자팀이 초등 우승을 차지했다.

무안초등학교는 여자 핸드볼을 오래전부터 육성해온 학교로 2012 제30회 런던올림픽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로 출전한 김은아 선수를 배출한 학교이기도 하다.

무안초 교사 조수일



전남교육

칼럼

장철호

프라임경제신문 기자

# 침대와 가구 vs 엄마와 어머니

몇 해 전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라는 광고카피가 오래도록 회자됐다.

당시 초등학교 시험문제에 가구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고, 광고 카피에 익숙했던 초등학교 상당수가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고 답했다. A사도 이 광고가 어린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 얼마 지나지 않아 광고를 중단했다.

옛그제 초등학교 2학년 딸이 4과목 시험에서 모두 80점 이상이라고 자랑했다. 건강하게 자라준 것도 어딘데 20문제에서 고작 4문제밖에 안틀렸다니 너무도 대견스러웠다. 하지만 딸이 건넨 시험문제를 보고, 뭔가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였다. 정답을 보고 역으로 추론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은 문제도 많았고, 억측인 문제도 간혹 눈에 띄었다.

특히 딸의 시험지에서 오답으로 처리된 바른생활 문제가 눈길을 끌었다. ‘가족을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기도 하며, 저를 낳아주시는 분입니다. 누구일까요?’라는 문제였

다.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니님이 날 기르셨다’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오륜가(五倫歌)와 정철(鄭澈, 1536~1593)의 ‘훈민가(訓民歌)]라는 옛말도 있고, 요즘 아버지들이 음식을 해주는 경우도 많은데 긴 머리의 여자 그림이 곁들여져 있었다.

딸의 답은 ‘엄마’라고 썼는데 틀렸다. ‘어머니’가 정답이란. 국어사전에 ‘엄마’의 정의는 ‘어머니를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다. 나는 강산이 변할 만큼 기사를 써 왔지만, 딸에게 그 문제가 왜 틀렸는지, 이해시켜줄 수 없었다. 대한민국 천지에 9살짜리 어린이가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케이스가 몇이나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수학문제도 그렇다. ‘사과 10개에서 5개를 먹고, 2개를 친구에게 줬으면 몇 개가 남았을까요?’하는 문제에서 ‘3’이라고 답했는데 또 틀렸다. ‘개’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 ‘교통 수신호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란 문제의 정답은 ‘교통경찰아저씨’나 ‘교통경찰관’ 이란다. 내 딸은 ‘경찰아저

씨’라고 답해서 틀렸다.

이제까지 문제는 그래도 이해해 줄만 하다. 국어 문제는 완전 짜증났다. 예문은 ‘지루한 낮 멧쟁이 장승이 빠드렁니 장승을 놀렸어요. 하하 넌 이가 빠드러져 수박 먹기 좋겠다. 빠드렁니 장승이 눈을 흘기면서 말했어요. 그럼 수박 좀 가져와봐. 이 잘난 척 왕자야!’이며, 문제는 ‘빠드렁니 장승의 처지에 대한 내 생각을 쓰시오’였다.

정답은 ‘빠드렁니 장승아, 너는 멧쟁이 장승이 놀려서 짜증(화) 났겠구나. 기분이 안좋았겠구나’였다. 딸은 ‘빠드렁니 장승아, 너무 마음 아파 하지마’라고 써서 틀렸다.

‘처지’는 처해 있는 사정이나 형편을 말하기 때문에, 빠드렁니 장승이 멧쟁이 장승의 놀림에 화났고, 맞받아치기 위해 수박을 가져오라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하지만 딸은 놀림받은 빠드렁니 장승이 안쓰러워, 위로하는 답변을 했다.

예문을 제시하고, 주인공의 처지에 대한 내 생각을 쓰도록 해놓고, 내 생각이 틀렸다고 오답처리한 것은 앞뒤가 안맞다. 부모인 나

는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본인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내 생각’이라고 전제했기 때문이다.

시험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다. 변별력을 갖춰야 하지만, 이 같은 행태의 정답처리는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하다. 혹여 딸이 마음에 상처나 받지 않을지 걱정이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당부 드린다.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 한 번 더 고민하고, 만약 대다수 학생들이 정답과 다른 답을 한 문제가 있다면, 왜 다른 답을 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다수의 답이나, 애매한 답이 나오면 그 문제의 평가 결과가 학습자의 향후 학습태도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오늘도 아침 일찍 집을 나와 종종 걸음으로 학교와 학원가를 누비면서도 녀살스런 웃음을 잃지 않는 딸이 자랑스럽다. 바른생활 85점 맞았지만, 앞으로도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시켰다. 잘한 일일까? 못한 일일까?

## 편지

편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속도에 점령당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는 아무래도 성에 차질 않는 모양입니다. ‘빨리 빨리’라는 주문(呪術)에 걸린 듯 빠른 것만을 추구하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조금씩 사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사는 인생은 어쩌면 죽음도 빨리 맞이할지 모르는 것일.

이런 시대에 편지는 유물 같습니다. 그러니 편지를 쓰는 사람은 석기시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도 그럴 것이 문명의 연장인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이 빠른 기능을 장착하고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옵니다.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 e-mail이나 문자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습니다. 빠른 것을 신앙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이 이틀이나 사흘씩 걸리는 편지를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속도에 밀려 이제 편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외로움은 달래줄 사람이 많지만 그리움은 한 사람뿐이어서 그리움이 더 아픕니다. 운명은 예측할 수 없어 운명이라 하듯이 언제 생을 마감할지 모

르는 암환자는 그리움이 여느 사람들보다 더 절절할 겁니다. 더욱더 그리움의 대상이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여인이거나 또 다른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이에 그리는 그림은 지울 수 있어도 마음에 그리는 그리움은 지울 수 없으니 말입니다. 만약 그 여인이 가슴 답답하게 하는 편지를 보내왔다면 몸은 겨울바람에 누워버린 고사리진 풀잎 같아도 마음은 희열로 얼마나 윤택해지겠습니까. 그리움을 실어 나르는 편지가 없는 세상은 삭막한 세상입니다.

몸이 성할 때는 이렇지 않았습디다. 그러나 암 진단을 받은 후에는 누군가에게 막 기대고 싶어졌습니다. 이럴 때 따뜻한 온도가 느껴지는 편지라도 한 통 받아봤으면... 그래 날 잡아 길을 떠나려합니다. 가야 할 곳을 몰라 길 위에서 길을 묻더라도 느리게 허적허적 걸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름 모르는 마을 어귀의 울연한 은행나무 등걸에 기대고 앉아 나에게 편지를 쓰겠습니다. 그새 몸은 좀 어 떠냐고. 아직 통증은 없냐고.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냐고. 사람들이 모두 죽음의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으니 병들을 너무 서러워하지 말라고, 사는 날까지 그저 세끼 꼬박꼬박 챙겨먹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그래도 불안하면 ‘꼭’을 잘 대라고. 이렇게 나를

위로하는 편지를 내 앞으로 부치겠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OO병원 8동 9층 간호사실로 편지를 썼습니다. 수신자는 김영주 간호사였습니다. 그 간호사는 입원 첫 날 맨 처음 만났고 퇴원하던 날 마지막으로 만난 간호사였습니다. 3교대 근무라 이렇게 마주치게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 간호사는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설핏 여자는 네 가지 아름다움을 지나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씨, 말씨, 솜씨, 땀씨가 그것입니다. 요즘 여자들 목소리가 자꾸 커집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무리 용광로같이 뜨거운 가슴을 지녔어도 언행은 가을 강물같이 서늘하고 투명할 때 매력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간호사한테서 통째로 이런 느낌을 받았습디다. 짝이 맞는 아들 녀석이 있으면 며느리를 삼고 싶었습니다.

늘그막의 나는 종합선물세트같이 몸에 병을 주렁주렁 달고 삽니다. 마니에르 병에서 오는 어지럼증, 당뇨, 전립선비대증, 피부 건피증에 따른 가려움증 등. 하여 여러 군데 개인병원을 다녔습니다. 이렇게 몇 년씩 다니는 단골환자(?)한테도 간호사들은 썩 친절하지 않았습디다. 이무러운 원장한테 간호사들

의 불친절을 지적하면 원장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하면서 얼버무리더군요.

이러한 불친절은 직업의 권태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러나 OO병원 간호사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나같이 오랜 동안 홀로 사는 사람은 정에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 간호사들의 친절은 그것이 설사 직업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크나큰 울림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환자들이 OO병원을 거쳐 갔을 겁니다. 웃음이 없는 칙칙한 병실을 밝게 해주는 간호사들의 헌신적 친절에 몇 사람이나 고마움의 편지를 보냈는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나의 이 작은 편지 한 장으로 눈덩이 커지듯 더 큰 친절이 되어 많은 환자들을 따뜻이 적셔주길 소망합니다.

옛 말에 이르기를 ‘앞으로 오는 공은 몰라도 지나간 공은 잊지 말라’ 했습니다. 편지가 실종된 시대에 OO병원 간호사들의 친절을 잊을 수 없어 고마움이 담긴 편지를 띄웠습니다.

김수평

나주공공도서관 이화독서회

### 송년의 인사

## 전남교육을 위해 함께 한, 그리고 또 함께 할 모든 이들에게 올립니다

해 오름달에서 매듭달까지  
 산비탈을, 진흙탕 속을 때론 넘고, 탔지만  
 끝내 소박한 마을 아이들 웃음 속으로  
 그대가 서서히 사라지는  
 그 순간  
 이제 고마움의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더불어 함께해서 고마웠다고.

어느 썸에서 멈추고, 어디썸에서 가야할지  
 누군 웃음이고, 누군 아픔인지  
 어렵고 힘들어 혼자라고 느낄 때  
 멀고 가까움이 없는  
 크고 둥근 거울 앞에 더불어 함께해서 정말 고마웠다고

이제  
 찬란하거나 요란하지는 않지만 소중한 믿음으로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새해이기를.  
 화초에 물을 주다 문득 웃음이 번지는  
 마음과 마음이 어우러지는 한 해이기를.  
 진한 그리움으로 올리는 이 간절함.

앞이 진 자리, 꽃자리이듯이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사랑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또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인 모든 이들이여!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가족이 함께 드립니다.